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9일(화)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6일(화)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성택, 권혜미, 송현민, 오영주, 정성진, 장재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제를 지원하여 발표
기회의 장과 해당 장르의 예술성을 확장하고,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넓힘으
로써 공연예술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제(축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동시
대 관객과 만나며, 전통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현재형의 전승'으로 확장되는 중요
한 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전통분야에 지원한 건수는 12건
으로 행정 결격 2건을 제외한 총 10개 단체 중 4개 단체를 선정했고, 본 사업에 배
정된 예산은 482백만 원인데, 4개 선정 단체에 총 42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심의는 2단계로 진행되어, 1차 서류심의, 2차 발표 및 인터뷰 심의였습니다. 심의 기
준은 크게 ①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40%), ②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40%), ③사업
계획의 공공성(20%)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예술적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적 향
유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는 관객 수·티켓 판매 실적 집
계, KOPIS 등록, 홈페이지/SNS 운영, 환류 체계(만족도·설문 등), 안전·재해대처 계획
등 '모객과 운영의 기본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중점을 합의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가) 전통예술 축제의 '필요성'과 '현재성'을 동시적으로 제시하는가를 살폈습니다. 전
통예술만의 양식적 특성과 (지역 축제의 경우) 그 지역 문화와 역사성을 존중하되,
동시대 관객이 '왜 지금 이 축제에 와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기획과 계획이 잘 담겨
있는지 보았습니다.

(나) 지역에 기반과 뿌리를 두되, 한편으로는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확장성(전국 단위 파급력, 교류·연계 가능성, 콘텐츠 경쟁력, 중장기
성장 전략)과 가능성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다양성은 축제가 갖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성격과 형식을 빌린
백화점식 프로그램 나열보다는, 핵심 콘텐츠가 뚜렷하고, 전통-역사-상상력-창의-동

시대적 감각의 유기적 구성과 맥락이 분명한 기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 신청단체 전반에서 모객을 위한 홍보 전략과 실적 관리(관객 데이터·판매 데이터·만족도·재방문 유도 등)가 취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는 축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보아 면밀히 살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에 지원한 예술제의 사업 효과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원 예산 내에서 지원 규모를 검토했고, 사업 규모·집행 타당성·재원 구성의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정된 예술제들은 대체로 다음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A) 장르나 지역 고유의 전통예술에 기반한 명확한 정체성을 갖추고, 이를 동시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 언어와 콘텐츠의 중심축이 분명하였습니다. (B)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행사 운영의 기본 요건(홍보 채널, 관객 집계, 안전 계획, 환류 체계 등)을 갖추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C) 사업 목표-전략-세부 실행이 잘 연결되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였으며, 예산 편성 또한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 축제의 핵심 콘셉트가 흐릿하거나, 프로그램 구성의 논리가 약해 “왜 이 축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였습니다. (E) 홍보·마케팅 전략은 있으나 과거 답습적인 기획과 자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타깃 관객 설정·채널 전략·성과지표·데이터 추적 계획이 부재한 경우가 많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F) 관객 수·티켓 판매 등 실적 관리와 자료 축적이 미흡하여,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료거나, 야외 축제의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적극적인 개방의 전략을 취하는 축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본 사업은 각 축제에 걸맞은 통계 시스템을 갖추기를 권장했습니다.

신청단체들의 애정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모객과 홍보, 실적 관리, 운영 체계의 정교함에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통예술의 가치가 ‘좋은 뜻’만으로 대중에게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축제는 예술적 성취와 더불어 관객 데이터, 홍보 전략, 안전·운영, 환류 시스템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공공 플랫폼이 됩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더 다양한 지역의, 더 다양한 색깔의 공연예술제가 ‘대한민국공연예술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